

국문장편 고전소설 〈조씨삼대록〉 속 노년의 모습과 그 함의*

—노년의 ‘신체’와 ‘감정’에 주목한 서술을 중심으로—

허순우**

— <차 례> —

1. 머리말
2. 젊음을 압도하는 노년의 몸에 대한 상상
3. 부정되지 않는 노년의 욕망과 감수성
4. 몸에 관한 서술을 통해 본 노년 인식의 함의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조씨삼대록〉이 그리고 있는 노년의 모습 중, 노년의 몸, 즉 노년의 신체와 노년의 감정을 서술한 부분에 주목하여 〈조씨삼대록〉이 담지 하였던 노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펴본 것이다. 동양적 사유에서는 나이 듦의 의미를 정신에서 우선적으로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노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체와 감정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정신적으로 원숙한, 이상적이며 규범적인 노년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간 분석되었는데, 노년의 몸에 관한 〈조씨삼대록〉의 서술을 검토해본 결과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온전히 규범적이지만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씨삼대록〉의 노년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젊은이보다 건강하고 왕성하게 묘사되는 노년의 신체에 대한 언급과, 억제되지 않는 노년의 감정을 진솔하게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이 작품은 몸의 층위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서 노년을 이해하는 경우, 그들을 무기력한 존재가 아닌 활력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혈기가 미정한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몸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따를 수도 있는 현실적인 존재들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년의 인물들이 이상적인 기대와 달리 미완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여 노년의 경험이나 연륜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몸의 문제에 주목하여 본 <조씨삼대록> 속 노년의 모습은 이상적인 노년상을 정해두고 그것을 갖대 삼아 노년을 평가하고 타자화하려는 인식에 대한 경계로서 의미가 있으며,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조씨삼대록> 전반의 특징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거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노년, 몸, 정신, 감정, 미완의 존재

1. 머리말

고전문학이나 전통예술에 나타난 노년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작품 속 노년의 모습에서 순응하는 지혜로운 노년,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년,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예를 지킬 줄 아는 균형감 있는 노년, 탈속적인 신선과 같은 노년 등의 인물상을 이끌어내며,¹⁾ 세대갈등이나 노인 소외 문제의 해법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노년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공존할 것을 제안하는, 노년의 정신에 주목하는 논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²⁾ 그러나 한 편에서는 노년이 정신적으로 늙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

1) 이숙인, 「노년의 거장들, 어떻게 달랐나」,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64~110; 고연희, 「흰머리와 잔주름의 붓끝에서 피어난 노년의 기상」,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112~155; 송혁기, 「낙차: 쇠락하는 신체의 발견과 그 수용의 자세」, 『한문학논집』 44, 근역한문학회, 2016, 117~144; 정선희,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과 현대적 의의」,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79~207 등.

2) 이승연, 「유가에 있어서 ‘노인’-늙음에 대한 인식과 대처」, 『유교사상연구』 24, 한국

숙한다고 믿는 것은 심신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서구철학의 산물”이라며, 노화와 정신의 관계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노년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³⁾

흔히 노년의 인물들⁴⁾을 인생살이를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른 존재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세대 갈등을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년의 지혜로운 모습이나 삶에 대한 달관이 책 속의 이상이라면, 늙어서도 떨쳐내기 힘든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나 인간적 욕망은 현실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에서 경로와 양로의 문제를 말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노인 스스로의 인격적 성숙을 강조한 것⁵⁾ 역시 노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정신적 성숙을 이루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최근 노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면서, 현실의 노년은 물론이고 문학, 예술 등이 구현해 내는 노년의 모습 속에서 노년의 욕망과 미성숙, 감정적/육체적 아픔 등을 읽어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⁶⁾ 그러나 고

유교학회, 2010, 209~238; 정선희, 앞의 논문, 2016; 조남욱, 『세종시대 노인공경의 실제와 의의』, 『윤리교육연구』 34,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245~274 등 참조.

3) 정유승, 『노인의 심리 변화에 대한 조선 문인의 인식』, 『한문학논집』 44, 근역한문학회, 2016, 191쪽.

4) 개인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는 『예기(禮記)』의 인생에 대한 구분에 따라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았고, 오늘날에는 통계청 등에서 고령화를 판단하는 노인 인구수를 산정할 때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보고 있다.

5) 이승연, 앞의 논문, 2010, 223~234쪽.

6) 마혜정, 『노년의 욕망: 발설과 은폐-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11~113; 박노현, 『시적 노인, 번역된 노년과 낭만적 노화-tvN 미니시리즈 <디어 마이 프렌즈>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7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239~262; 정인숙,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전소설, 그 중에서도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 연구는 아직 노년의 정신적인 성숙을 부각하는 단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주인공 가문의 노년 인물들은 윤리적, 인격적으로 완성된 존재, 지혜롭고 포용력 있는 존재,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판단력을 지닌 존재,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달관의 경지에 이른 존재들로 평가되기 일쑤다.⁷⁾

그러나 소설이 곧 수신사는 아닌 만큼,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갈등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작중 인물들을 창작하면서 그 인물을 온전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상적인 존재로만 묘사하기는 어렵다. 틈이 있기 마련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그러한 틈을 포착하여 ‘편견’이나 ‘가문의식의 이면’과 같은 용어로 설명하였다. 비록 노년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엄숙한 태도로 유교적 이상주의를 표방”했으나 은연중에 가문이기주의와 세속주의에 기반 한 허위의식을 노출하고 만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이면을 들여다본 연구들⁸⁾은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노년’을 새롭게 이해해보려는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작품이 서술하고 있는 규범적인 노년의 모습

대한 인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23~158; 안세현, 『이옥의 <각로선생전>; 노쇠한 신체의 발견과 자기 서사』, 『한문학논집』 45, 근역한문학회, 2016, 253~276; 안순태, 『윤기의 탄로시 연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221~247 등 참조.

- 7)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분석한 것 중 인물론이 아닌, ‘노년’이라는 인생의 시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다. 정선희(앞의 논문, 2016.)의 글이 노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년을 “엄한 교육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 “애뜻한 사랑과 자애로움 표현”을 할 줄 아는 인물들, “갈등 조정과 분위기 조성”을 담당하는 인물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윤리 실행”에 앞장서는 인물들로 분석하였다.
- 8)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9;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73~107;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 등.

과 아울러 그 이상의 틈새로 은연중에 비어져 나온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노년의 모습, 즉 그들의 육체와 감정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씨삼대록>에 나타난 노년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서술들을 통해 이 작품을 향유했던 집단의 노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씨삼대록>의 노년 인식 전반이 아닌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까닭은, 고전서사문학의 노년상을 고찰한 선행 연구에서 <조씨삼대록>을 포함하여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노년의 이상적인 면면은 포괄적으로 논의되었으므로⁹⁾ 규범적 노년상에 대한 중복 논의는 자제하고 선행 논의와 변별되는 지점에서 <조씨삼대록>의 노년 인식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조씨삼대록>은 주인공 가문의 1대에서부터 6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삶을 그리는 과정에서, 노년에 대한 관심을 작품 종결부까지 잃지 않고 있으며 노년의 정신뿐 아니라 그들의 몸과 감정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 작품이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¹⁰⁾ 정신(이성)과는 변별되는 몸, 즉 노년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씨삼대록>이 담지하고 있는 노년 인식의 일면을 엿보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생

9) 정선희(2016), 앞의 논문, 191~200쪽 참조

10) 조용호는 <조씨삼대록>을 인물 범주가 6대에 이르는 작품(『조씨삼대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3쪽.)이라고 했고, 임치균은 5대가 공존하는 작품(『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252쪽.)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5대가 공존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요약적으로라도 제시되고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들까지 포함한다면 <조씨삼대록>은 6대가 공존하는 작품이다.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노년’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5대록으로 볼 것인가 6대록으로 볼 것인가는 핵심 논의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5대 혹은 6대의 인물들이 등장할 때까지 노년의 인물들을 사망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사 문면에 등장시켰다는 점, 그리고 그 덕분에 노년에 관한 작중 인물들과 향유층의 태도를 접할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5대 혹은 6대록으로의 서사 확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각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¹¹⁾ 본 연구는 그간 국문장편 고전소설 독해 과정에서 분석 대상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노년의 ‘몸’에 관한 서술을 통해 <조씨삼대록>의 노년 인식의 일면을 읽어보고자 하는 시론이므로, 본 연구 단계에서는 노년 인물의 ‘몸’에 관한 서술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몇몇 장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¹²⁾

2. 젊음을 압도하는 노년의 몸에 대한 상상

<조씨삼대록>은 한 인물이 죽음에 임박하기 전까지는 그 인물의 몸을 노쇠함이나 늙음이라는 어휘로 거의 수식하지 않는다.¹³⁾ 그렇기 때문에

11) 서강대 소장 <조씨삼대록>(40권 40책)을 대본으로 한 김문희, 정선희 외 역, 『삼대록 계 국문장편소설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을 주 텍스트로 하였다.

12) 본 연구는 노년의 몸, 즉 신체와 감정에 주목한 작중 서술을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노년 인식과는 변별되는 <조씨삼대록>의 노년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노년 인물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조씨삼대록>의 노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년 인물들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정신이 아닌 몸에 주목해보겠다는 연구의 의도, 지면의 양, 내용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변별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고, 부제를 붙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노년 인물의 정신과 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축적하여 <조씨삼대록>뿐 아니라 고전소설이 드러내고 있는 노년 인식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하겠다.

13) 이 작품에서 노쇠함이라는 어휘는 인물이 임종에 이른 상황에서 한 차례, 혹은 어떤 인물이 늙음을 평계 삼아 규범에 어긋난 일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의 처지를 두둔하는 상황에서 한두 차례 사용된다.

“윤부인이 쉬 구십의 망하니 제왕과 월명이 거의 팔십이라 노년 기력이 위위하여 습상을 맞지 못하여 제좌 히를 니어 기세하니 희라 오직 삼양의 부지하는 자는 월명문계 문의 문청 등이라.” <조씨삼대록> 40권 83면.

평계왕 조기현 등 <조씨삼대록>의 4대 인물들이 죽음을 맞는 부분이다.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후 급격히 몸이 쇠하여 나이 80의 임종 순간에서야 노년에 기력이 위태

신체의 노쇠를 계기로 인생을 회고하거나 성찰하는 노년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늙어서도 왕성한 기운을 자랑하는 노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소설은 노년의 인물들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늙어가는 존재로 묘사하기보다는 건장함, 아름다움, 왕성함, 깨끗함 등의 어휘로 수식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신체가 젊은이들보다 우월하다고도 말한다. 조씨 가문의 노년 인물들 또한 여타의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노년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에 더하여 젊은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노년의 신체적 건재함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년의 신체적 왕성함은 가족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잔치인 혼례식이나 회방연(回榜宴), 회혼례(回婚禮) 등에서 더욱 부각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회방연이나 회혼례는 모든 면에서 윤택한 노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가) 노공이 회파년이 다다르니 진 초 이공이 불승형열하여 장춧 대연을 개장하여 만도공경과 년가결친이며 황친국척을 다 모으니 츠일 성만흔른 천고의 회한흔지라 (중략) 노공이 냥즈제셔로 거느려 슈좌의 거흔미 제손이 만당흔여시며 풍악이 진턴흔고 가관이 요요흔여 구름의 연흔여시니 만좌

해졌다든 수식이 조기현 등에게 불게 된다.

“순태부인이 문득 발연 노쇠 왓 **미망여심**이 혼 손아를 위하여 주점스로오미 네 **늙은**니 망녕으로 일위니 내 말흔를 도로혀 붓그리노라 초공이 황망이 면관 청죄 왓 유익 어린 나히 삼취 불가흔를 고희미러니 이제로조츰 엇지 감히 다시 거스리잇고 삼가 명대로 흐리이다 부인이 비로쇼 노를 도로혀 관을 주어 쓰게 하며 슈히 성친케 하라 혼대 초공이 순순히 수명흔고 물너느니 혹시 심중의 크게 깃거흔나 것츠로 감히 수식 못흔더라.” <조씨삼대록> 2권 89~90면.

순태부인은 자신이 증손자 조유현의 삼취(三娶)를 허락하였는데 손자 조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자 자신의 삼취 허락을 “늙은이가 망령이 나서 한 것”이라고 여기는 나머지 짐짓 화가 난 듯 행동한다. 순태부인이 자신의 행동을 늙은이의 망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행위를 진심으로 노년의 망령된 행위라고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안의 어른인데 조성이 그 뜻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다.

계빈이 회식이 은은하고 회귀 의의하여 날이 느즈니 분분하더니 시적이
 림하미 노공이 계즈손을 거느려 내당의 니르니 경 양 이부인이 녀부틀 거
 느려 위태부인을 뵈셔 마즈 좌를 일위미 노공이 연고 구십이 거의로대 늑
 늑흔 정신과 석석흔 기운이 쇼년을 웃고 부인의 단일성장흔 덕도와 쇠락
 흔 풍치 쇼년을 압두흔는지라 태부인의 두긋기미 비길 대 업더라

<조씨삼대록> 35권 3~6면.

나) 일월이 흘러 진왕과 경비의 회혼이 다다르니 월명 문의 등이 대연을 진
 설하고 허다 즈손과 내의 친척이며 도령 명공이 모드니 은선향 십리정의
 취막이 구름을 년하고 군턴광악이 구쇼의 스밋쳐 황금을 횡대흔 무슈 즈
 손은 좌우로 성렬흔니 장려하미 천고의 회한하더라 진왕부부 면피 쇼년을
 묘시하니 허다 즈손이 좌우로 시립하여 허다 중인의 회귀 만면하니 노공
 부부 아름다옴을 이기지 못하여 왈 우리 세상이 너모 지리흔를 한하더니
 즈부의 회혼을 보니 진실노 회귀흔 일이라 하니 왕이 낭친의 우으시를 위
 하여 비로 더브러 레를 하미 회연 쇼왈 신뵈 슈습흔 레피 업서 눈을 크
 게 셔 신랑을 보니 좌우 빈각이 다 넘게 너기노도다 하고 제 즈손이 다
 즐기믈 이기지 못하니 경비 쏘흔 잠쇼 왈 괴괴흔 거조를 하미 우읍거늘
 엇지 상시 아니시던 회담을 하시나노 왕이 호호박쇼 왈 신뵈 대져 너모
 활발하여 교비를 맞고 즉시 신랑과 말하즈 하니 엇지 넘나지 아니리오 노
 공부부 대쇼하고 회블증승하여 여러 즈손으로 잔을 부이며 풍뉴를 나와
 종일 진환하니 인간낙식 이의 지나미 업더라

<조씨삼대록> 38권 86~88면.

회방연은 한 인물이 과거에 급제한 후 60년이 지난 때를 기리는 잔치이
 며 회혼례는 부부가 혼인한 지 60년이 지난 때에 혼인의 의미를 새롭게
 기리는 예식이다. 과거에 급제하거나 혼례를 치른 나이가 적어도 10세는
 넘는다고 보면, 회방연이나 회혼례를 치르려면 못해도 70세 이상의 나이

가 되어야 한다. 특히 회혼례의 경우 배우자가 모두 살아있어야 하고 후손들의 여유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에 “늙어서도 건강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물질적 여유가 뒷받침되는 그런 노년”¹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잔치이다. 가)와 나)는 각각 조노공의 회방연, 조무 부부의 회혼례를 묘사하고 있다. 나이 90이 넘어서도 젊은이들보다 우월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뽐내는 조노공 부부, 나이 70이 넘어서도 젊은이들보다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조무 부부와 그들의 회혼례까지 볼 정도로 자신들이 오래 살아 지루하다는 투정아닌 투정을 하는 조노공 부부의 여유로운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시대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¹⁵⁾를 참고해보면, 18~19세기에 70세 이상의 노인을 보는 일이 매우 희귀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중 중심가문인 조씨 일가의 순 태부인, 조노공 부부, 조노공 부부의 자녀인 조무와 조성 형제 부부, 그리고 조무와 조성의 자녀 세대 등 4대가 모두 80이상의 수명을 누리고 70~80의 나이에든 정신은 물론이고 신체 또한 젊은이들을 압도할 만큼 아름답고 빼어났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¹⁶⁾

한편 <조씨삼대록>은 노년의 인물들이 누리는 윤택함이 윤리규범에

14) 정인숙, 『회혼가류 가사를 통해 본 노년의 행복과 가문의식 그리고 내면의 갈등』,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14쪽.

15)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7~19세기 경북지역의 평균수명이 64.8세 정도였다고 한다.(김미영, 『조선 노인들의 장수, 그 오래된 염원』,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31~32쪽.)

16) 미추(美醜)를 선악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중심 가문 인물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42~243쪽.)은 국문장편 고전소설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청장년과 노년을 비교하면서 ‘노년’의 신체적 우월함을 강조하고, 작중 인물이 대부분 평균 80세의 천수를 누리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 잘 다스려진 가문이라는 토대와 가문 구성원의 도덕성이 뒷받침 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¹⁷⁾ 정신적으로 성숙한 노년만을 이상적이라고 평가하거나, 존경의 대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노년에 이른 인물들의 감정과 욕망을 서술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부정되지 않는 노년의 욕망과 감수성

<조씨삼대록>도 여타의 국문장편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나 가문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인물은 엄하게 다스리고 교정한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불고이취(不告而娶)라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빼가 드러나도록 매질하여 꾸짖기도 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른을 속

17) “회회라 어느 썩 현인군직 업스리마는 공의 대성인의 풍칙와 도덕이 비우홀 재 업스니 공의 충회 천고를 기우려 홀 사름이오 성우 빅힘이 일세 무쌍하니 즈으시오 지우 팔십년 형적이 청턴빅일 굿터 빅옥이 티 업스며 황금이 단련하여 인군고 충성하며 부모를 효양하며 증삼과 데순이라도 맞지못홀 거시오 풍녀의 강개하며 괴질이 빛나 괴관의 청개하며 당시 위증과 한시 제갈을 압두하며 조심경직하여 평싱 충양지덕은 이윤주공을 압두하니 리음 양순스시하여 치국평턴해 극진 기도하여 직상의 지낙과 군주 장부의 위풍이 신상의 완전하여 빅힘이 그 몸을 두르고 일천 위의 면모의 나뜰나 텃디의 즈품과 만복 신기 고급의 현인 군주로 비우하니 싱이지지하고 싱이지성하여 춤어군효어친하고 형을 우공하고 어하의 은혜 후하여 말슴을 발하며 쥬론뎡변이오 일죽 룡문의 울나 위거삼태하고 제주의 스위 되어 총권이 묘야를 기우리고 덕망이 스셔의 진동허디 일호 거오하며 업셔 동일지위와 양춘지화기로 립도 녹십여 년의 형의도덕이 빈빈숙숙하여 례의 몸을 빛내나 규각의 삼위 숙녀로 이친을 종효하고 녹십여 년 형낙의 즈손이 만당하고 효즈현손이 대를 니어 제사를 맞드니 종샤 되대로 창성하며 진실노 공의 어진 덕이 홀너 이의 맞춤편이라.” <조씨삼대록> 40권 20~23면. 인용문은 조국공 조성의 임종 시 그의 생애를 기린 내용이다. 조성이 충효를 비롯한 오륜의 덕목을 지켰기 때문에 집안이 대대로 창성할 수 있었고 조성 또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인물이 엄동설한에 눈비를 맞으며 용서를 빌다 동사할 지경에 이르러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이나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노년에 대해서는 한결 유한 태도를 보인다.

노년의 욕망에 대한 <조씨삼대록>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조씨 집안의 2대 어른인 조노공이 요녀 무릉선에게 흘러 손자며느리 혜선공주와 한씨를 박대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조노공은 나이 80에 범생과 소화요라는 간인의 꾀에 빠져 이성을 잃게 되고 요녀 무릉선을 총애하여 가내에 분란을 일으킨다.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에도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에 충실한 노년 인물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명주옥연기합록>의 육취옥은 지혜롭지 못하고 성격이 거칠며 술만 먹었다하면 이성을 잃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적인 노년이다.¹⁸⁾ 그런데 조노공과 육취옥은 차이가 있다. 육취옥은 현씨 가문에 “시집 온 여성”으로서 그녀의 성품과 행실로 인해 타자화 되는 위치에 놓인 인물¹⁹⁾이지만 조노공은 작중 핵심 인물인 조무와 조성의 친부이며 그 역시 조씨 가문을 구성하는 중심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작중 중심 가문의 최고 어른, 그것도 자녀들을 군자와 호걸로 훌륭하게 키워낸 인물이 노년에 이르러 갑자기 흐트러지는 이야기는 드물다.

18) <명주옥연기합록>에서 육취옥은 노년의 인물로 등장한다. 육취옥이라는 인물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는 박은정의 연구(『<현씨양옹쌍련기> 연작의 ‘육취옥’ 연구』,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223~260쪽.)가 있다.

19) 선현연구에서는 시집온 여성들이 타자화 되는 계기로 추모, 혹은 성장한 문화의 이질성 등을 꼽았다.(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 : <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514~515쪽 참조.) 대체로 많은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차별하고 배제할 인물들의 외양과 행동을 한껏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타자화 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쇼데 나히 밍셔 팔십의 림하고 괴력이 쇠모흐나 인성이 빅년이 늦겨온지
라 남으의 호스를 다호여 마즈막 즐기고 죽으려 호느니 청컨대 무능션을 날
을 슈를 바라노라 <조씨삼대록> 31권 70면.

이성에게 흘려 규범이나 체면보다도 욕망을 우선시 하는 주인공 가문의 노년 인물이 묘사되는 것은 “이런 근심이 이시른 실노 념 밍기라.”²⁰⁾ 라는 조무의 말처럼 뜻밖의 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노공의 변심이 악인들의 소행에 의한 것임을 간파한 조무, 조성과 조기현 등의 지혜와 효심덕분에 쉽게 해결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짧은 일화형식으로 마무리 된다.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이성적이었던 인물 속에 잠재되어 있던 여린 감정이 노년이 되어 드러난 또 다른 예로는 쌍둥이 아우 조성의 죽음을 대하는 조무의 모습을 들 수 있다.

왕이 정식 왈 오슈박형이나 칠십여 년 형세호미 괴려 집상호는 레문을 부
인기 비홀 배 아니라 녀즈의 도라 호령이 불출중문호며 말숨이 외스의 간예
치 못호느니 어리나 어지나 가뵤 스라시면 출힐 비오 즈식이 사르시면 니어
알 거시니 이제 종턴지통을 만나 설우를 품고 망극한 종제를 필호여 인즈의
무이지통이 싱불여스호여 만식 부운 갓거늘 어지 어즈러운 말노 너 심식 요
란케 호느노 저제 부르시니 드러와 부인과 슈쉬 모드시니 삼상 후 처음으로
셔로 보미 비회 교집호 중 츠언을 드러미 일츄 심해 더으난도다 말숨이 엄절
호고 스기 한숙호니 공췌 대참호여 늦출 북히고

<조씨삼대록> 39권 46~48면.

조노공 부부의 삼년상을 지내며 수척해진 남편 조무가 안타까워 금선

20) <조씨삼대록> 31권 75면.

공주가 염려하자 조무는 금선공주가 법도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며 엄하게 나무라서 금선공주를 무안해 하게 한다.²¹⁾ 예법을 중시하고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조무의 엄격하고 강한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조무의 이런 면모에 대하여 누이 석부인도 조금은 관대하고 화평하게 행동해도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할 정도로 평소 조무는 어른들에게는 공손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매섭고 엄격한 가부장의 모습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조무가 80이 넘은 쌍둥이 아우 조성의 죽음에 직면하여서는 슬픔의 감정을 절절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쏟아낸다.

희라 장성이 남억히 썩러지미 국중의 풍교를 불하며 레의의 성현이 즈취를 감촌지라 일세인이 공이 망흐물 드르미 타루치 아니리 업스니 흐믈며 그 즈절형태의 마음이리오 진왕이 이 날 울기를 굿치지 아나 밤식도록 잇통운

21) 비록 제시한 예와 같은 부분에서는 조무가 금선공주를 나무라지만, 여타의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 작품과 비교해보면 <조씨삼대록>은 금선공주와 같은 인물의 감정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금선공주는 온갖 악을 행하여 조씨 가문에서 축출될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용서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성품의 인물로 변모하지도 않는다. 만년에 이르도록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예를 들어 남편 조무가 임종을 앞두고는 자신은 부르짖지 않고 적국인 정부인과 최부인을 먼저 불러 유언을 한 것에 대해 금선공주는 섭섭하다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남편의 임종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적국보다 자신이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금선공주의 모습은 분명 소위 정숙하고 규범적인 부인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이제 금선이 왕의 위턱흐물 듯고 나오더니 정취만 청흐물 이중 투심이 이러느니 가슴을 두다려 왈 가부의 급흔 썩물 당흐여 뉘 경이 다르리오 <조씨삼대록> 40권 67면.) 그러나 금선공주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억제하고 가문의 법도에 순종하는 인물이 되지 못했다고 하여 그녀가 가문 내에서 축출되는 것도 아니다. 금선공주의 경우 애초부터 이성적이라거나 규범적이라는 등의 평가를 받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외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죽음이 임박한 나이에도 가문이 요구하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금선공주 또한 한 가문의 어른으로 그려지는 이러한 면은, 노년이 된다고 하여 모든 인물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씨삼대록>의 노년 인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절하고 공을 일침하여 니지 아나 왈 내 낭친을 영결하고 위로하여 구연시식
 흐른 내 아이 오히려 이시미러니 이제 아를 상하미 무어슬 위하여 괴로이
 살이오 너희는 날을 위하여 혼가지로 빙념하여 이 슬우물 잇게 하라

<조씨삼대록> 40권 23~24면.

세상을 떠난 조성의 시신 옆에 누워 밤새 통곡하며 자신도 조성과 함께
 염을 해달라고 말하는 조무의 모습에서, 삼상을 치른 후 수척해진 남편이
 안쓰러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금선공주를 준엄하게 나무라던 모습을 찾
 기는 어렵다. 아우를 따라 자신도 죽겠다며 음식도 거부하고 시신 옆에
 누워 슬픔을 토로하는 조무의 모습에 자손들은 망극해하고 아내 정숙렬
 은 심란함을 느끼지만²²⁾ 조무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슬
 픔에만 집중한다. 여러 차례 숨이 막혀 인사를 차리지 못하기도 하고, 눈
 물을 하수와 같이 흘리며 처절한 소리로 울어 차마 남들이 듣지 못할 정
 도로 애통해하는 것이다.²³⁾

유즈 등이 텃디의 득죄호와 이제 하늘 문허지는 변을 당호오니 지향할 곳
 이 업소나 오히려 빅부를 우려와 대인 유교를 봉승코져 호읍거늘 이갓치
 과도호샤 도로혀 유즈 등의 망극한 정스를 더오게 호시니 누를 바라고 견대
 리잇가 유지 청컨디 빅부 면전의셔 죽어 설우물 모르고져 호느이다 왕이 문
 계의 척감흔 면모의 일천 줄 혈뇌 니음츠고 열열흔 성음이 비절하여 즈로
 싰쳐지름 보미 골절이 녹는 듯흔지라 이의 니러 안즈 손을 잡고 크게 울어
 왈 아이 업스나 네 얼굴이 이시니 스이불시라 내 엇지 생각이 업스리오마는
 좌와를 궂치 호고 형영이 상조하여 일시도 썬지 못할 정으로 이제 내 살고
 제 죽으니 유명텃디의 설우미 가업는지라 일일 동스호고져 호엿더니 여언을

22) “제지 망극하미 더오고 정비 슬픈 중 불승술난하니.” <조씨삼대록> 40권 25면.

23) <조씨삼대록> 40권 19~28면.

드르니 가히 잔잉하고 슬픈지라

<조씨삼대록> 40권 26~28면.

동기의 죽음 앞에서 80평생 굳게 다잡아 왔던 여린 감정을 폭발하듯 쏟아내는 조무의 모습, 죽은 아우를 닮은 조카 유현의 얼굴을 보고 위로로 얻으며 힘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아우와 한날한시에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다시 목 놓아 우는 조무의 모습은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다. <조씨삼대록>은 쌍둥이로 태어나 한 살, 네다섯 살, 예닐곱 살, 열 살, 그리고 성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지냈던 시간을 회고하는 제문을 쓴 후 통곡하고, 반혼 때에도 묘 아래에서 허수같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서도 슬픈 마음을 거두지 못하는 조무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 가문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호령하던 굳세고 냉정한 가부장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노년으로 옮아간 모습을 보여준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가문이 혼란하지 않도록 정도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노년을 이상으로 제시하지만²⁴⁾ 다른

24) “초공이 왕의 과상함을 보고 안식을 꾀쳐 위로 왈 쇼태 나히 팔십이오 누린 바 복죽이 괴의라 엇지 하늘을 원하리잇가 스오년 넘냥이 훌훌하니 엇지 형태 천양하의 모 드미 언마 오리리잇가 이러툷 과상하시미 도라가는 마음이 어즈러울 짜름이라 (중략) 내 이제 너히를 위하여 스경을 춤지 못하여 말을 갖치니니 벽운산이 오릭 이실 곳이 아니라 텃태산 산쉬 명려하고 도되 머리 가히 세상을 폐홀지라 가히 치스하고 가권을 비의 시러 상류로 향하여 텃태산의 가 시절을 피하여 만흔 즈손을 보전하고 성을을 맞춘너 저바리지 말고 나아가 흥가지로 다시 송도를 중흥케하라 여등이 나히 만코 각각 현실의 괴근즈의 뜻이 이시니 다시 니를 말이 업스나 제쇼비는 짜락기 어러오니 다 곁퇴하고 이인관후하여 덕을 일우고 인을 힘하라 고인이 황궁을 뺀하 즈손을 유지 말고 격선하여 즈손의 은공을 끼치라 하니 너히는 내 말을 잊지 말고 격선하여 즈손을 계척하고 여러 즈손 중 스스 직물을 두고 부조의 명훈을 불철자여든 가히 내 사당의 세위 즈손 슈의 두지 못하게 하라.” <조씨삼대록> 40권 9~12면.

조무가 조성의 죽음에 직면하여 슬픔이라는 감정을 여과 없이 분출하는 반면, 죽음의 당사자인 조성은 매우 담담한 태도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가문의 안위를 염려하고 후손들을 경계하는 것으로 최후의 시간을 보낸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대체로 조성과 같이 지혜롭고 이성적이며 규범을 체화한 인물을 이상적인 노년상으로

한편에서는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자유로운 노년의 모습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4. 몸에 관한 서술을 통해 본 노년 인식의 함의

젊은이를 압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의 신체에 대한 상상과 이성
에 대한 욕망, 망자에 대한 슬픔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노년의
정서에 대한 표현은 <유씨삼대록>이 노년의 정신뿐 아니라 몸에도 관심
을 기울였다는 점을 드러내주며 소설이 몸을 통해 노년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노년의 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체의 노화이다. 신
체의 노화는 인간이 거스르려 해도 막아낼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노화
속도의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고 노화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노화는 느린 속도로 지속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기준으로 노화 이전과 이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자신이 노쇠했
다는 것을 부쩍 강렬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인지
고전문학 작품 중에는 노화된 몸을 통해 노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가사,
한시, 한문 산문 등이 꽤 있다.

제시한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유씨삼대록> 19권에는 진공이 사망한 후 자녀
들이 지나치게 슬퍼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장부인이 자녀들의
지나침을 타이르고 깨우쳐주기 위해 자녀들이 슬픔을 거두지 않으면 자신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관에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리는 장면
이 나온다. 장부인뿐 아니라 진공이 사망한 후 그의 형 성의백이 쓴 제문을 보아도
집안의 어른인 노년의 인물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우의 죽
음을 참담하게 여기는 동기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만 조무처럼 유아기의 일들을 구구
절절 회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장례를 끝내고 성의백이 통곡하다가 거꾸러졌다는
표현이 한 차례 나오긴 하지만, 동기를 잃은 슬픔을 그 이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한시 가운데 ‘낙치(落齒)’ 현상을 다룬 작품을 보면 신체의 노화에 직면한 노년 인물들은 노화에 대한 당혹감에서 좌절, 순응, 자위, 해학 등의 반응을 이끌어내어 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낙치로 인한 불편이 한둘이 아니었겠는데, 예를 들어 글을 남긴 문인들은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남 보기에 추해진 자신의 외모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노화를 절감한다.²⁶⁾ 치과의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시대에 낙치라는 노화 현상은 부유함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니 이를 계기로 하여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쇠함, 늙어감에 대해 실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작품 속에는 쇠락함, 울분, 황혼, 질병, 추함, 부끄러움 등의 어휘가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늙음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를 양생법을 터득한 신선에 빗대는 등의 호기를 부려보기도 하지만²⁷⁾ 결국에는 노년에 접어든 신체의 노화를 인정하고 자위하며 마음을 다스린 후 그것을 계기로 삶을 성찰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백발이나 낙치와 같은 노쇠현상과 더불어 질병과 노화를 연관 지어 노년의 삶을 그린 가사에서도 아름다움을 상실한 자신의 몸을 낮설어하는

25) 송혁기(2016), 앞의 논문, 117~144쪽.

26) 송혁기(2016), 앞의 논문, 121~126쪽.

27) “거울 보며 늙어간다 싫어할 것 없다네/ 인생살이 늙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닌가/ 눈이 밝아 그래도 글자는 알아보고/ 이 빠졌어도 밝은 아직 먹을 만하다오/ 세상 살아가는 데 재주 없는 비둘기가 편한 법 / 쓸모없어 천수 누린 상수리나무처럼만 살리라/ 늘 그막에 양생 경전 살펴보다가/ 신선 되는 대환 단약 이미 얻었네.”(申鉉, 『象村集』 권 11, <今年五十六矣, 臨鏡戲書>)
 “머리 벗겨지니 복건 쓰기 편해 좋다네 / 이 빠졌다고 노래 소리 그칠쏘냐 / 인생살이 오복 중에 장수가 으뜸이니 / 쇠락한 용모로나마 젊을 적 호기 부려보네.”(蘇世讓, 『陽谷集』 권 9, <庚申年迎祥 立春併入元日> 제2수)
 선행연구에서 번역하여 제시한 시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송혁기(2016), 앞의 논문, 129~132쪽에서 번역문, 출처 인용.)

화자,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을 앗아간 질병을 원망하고 슬픔을 토로하는 화자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²⁸⁾ 서러움, 아픔, 병, 부질없음, 변형, 한숨 등의 어휘로 수식되는 늙음은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간에 서로를 연민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기도 하지만²⁹⁾, 근본적으로 거스르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상으로 그려진다.³⁰⁾

그 외에 글의 초반에는 몸의 노화를 당혹스럽게 여기다가 결국은 수궁하는 이옥의 <각로선생전>이나 늙음의 구차함과 초라함을 인정하는 정약용의 <노인일쾌사> 등의 작품을 통해 노쇠한 신체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노년관을 도출해내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이처럼 신체가 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신체의 노화 현상을 전제한 후 노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고전문학에서 노년의 몸을 이해하는 보통의 방식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조씨삼대록>은 노년의 신체를 노쇠한 것으로 그리지 않고 오히려 청장년보다도 왕성하고 우월한 것으로 묘사한다. 낙치의 당혹감을 느낀다거나 외모의 추레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젊음을 압도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외모를 자랑하고 80세, 100세를 거뜬히 넘긴다. 70~80세의 노인이 20~30대의 일반적인 청년보다 아름답고 건장할 수는 없느냐, 과장된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의 몸에 대한 이러한 상상은 다른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28) 정인숙(2010), 앞의 논문, 132~145쪽.

29) 정인숙(2010), 앞의 논문, 148쪽.

30) 노쇠한 노년 여성을 형상화한 조선 후기 시가작품을 다룬 또 다른 연구(이수곤,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57~85쪽.)에서는 겉모습은 추레하게 묘사되고, 성적 욕망은 희화화되는 노년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31) 김경미, 『우리름과 능멸의 삶, 늙음을 받아들이는 법』,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178~190쪽.

등장하는 노년의 모습과도 차이가 있다.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외모를 미화고 인물의 장수를 언급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80~90세 노인의 신체가 젊은이를 압도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소현성록> 속 태부인과 소경도 80세 이상을 살지만 80세에 가까운 말년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우월함은 정신적 성숙과 검소함, 효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신체적 아름다움을 통해 강조되지 않는다.³²⁾ 물론, <소현성록>에서도 소운성이 명현공주와 혼인하는 날 궁인들이 소부에 와서 양 태부인과 소경, 석부인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아리따운 모습과 깨끗한 분위기가 젊은이들의 빛을 빼앗을 정도라고 평가하는 장면³³⁾이 그려지긴 하지만, 당시 소경과 석부인의 나이는 작중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많아야 30세 초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씨삼대록>에서 80~90세의 노년 인물과 젊은이의 외모를 비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생물학적 노화를 거스르는 육체적 젊음에 대한 지나친 상상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 노인이 욕망하는 이상적인 노인”³⁴⁾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시기로 간주하고 타자화 하는 연령주의에 기반 한 노년관이 지닌 문제

32) “세월이 뉴슈 갖터여 즈네 당성흐니 승상이 너비 구허야 각〃 아름다운 비필을 엇게 호고 두 부인으로 화락하며 낭미를 화우호고 셔모를 공경호야 모전의 효를 지극히 밧드러 비록 즈너 만코 나히 쇠흐나 모친 안전의는 몸 가지기를 아히긋터 호며 신성과 혼당의 게어르미 업서 일시도 페티 아니며 양부인이 오디 손싼디 보디 가스틀 노티 아니〃 화석 두 부인이 쏘흔 네문을 넘고디 야냐 방 둥의 촌만흔 것도 스〃 지물과 그르시 업서 다 양부인의 드려 고통의 녀헛다가 승상과 즈가의 끌 고디 이시면 취포코 어더 쓰며 므룻 금슈농나를 어더도 다 고의 녀헛 썰 썰 이시면 고흔 후 임의로 내야 쓰니 가등이 다 의구흔 일노 아디 오직 스지를 머므르면 시네라도 무상히 너기더라.” <소현성록> 4권 124~125면.

33) <소현성록> 6권.

34) 박노현(2017), 앞의 논문, 240쪽.

점을 생각해본다면,³⁵⁾ 노년을 무력한 존재로 그리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활력적인 존재로 상상하는 이런 인식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도 있다. 무력감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정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개인의 지각”으로,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는 주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하는데³⁶⁾ <조씨삼대록>에서는 임종 직전까지 대부분의 노년 인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노년이 육체적 질병과 쇠락으로 인해 고독과 좌절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조노공이 판단력을 잃고 욕망을 표출하는 일화나 조무가 조성의 죽음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 역시 ‘몸의 한 영역인 감정’³⁷⁾의 차원에서 노년을 이해한 <조씨삼대록>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만약 조노공에 관한 일화가 노년에도 매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함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일화는 조노공으로 인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는 각성한 조노공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유현 등이 무릉선을 내쫓았다고 오해하여 불같이 화를 내던 조노공이 자녀와 손자들의 위로

35) 정진웅,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보건사회연구』 3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456쪽.

36) 이선영, 박연숙, 「노인환자의 무력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공주문화대학논문집』 26, 공주문화대학, 1999, 4~5쪽.

37) 전통적으로 감정(감성)은 몸의 지각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감정이나 몸은 이성의 한계로 여겨졌고,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심귀연, 『메트로-폰티에 있어서 몸과 감정의 문제』, 『대동철학』 80, 대동철학회, 2017, 79쪽.) 이성과 감성을 이해함에 있어 이성 중심 철학에서는 “신체에 기반 한 감성 내지 감정은 주관적이고 사적(私的)이며 따라서 도덕성과 무관하거나 대립하는데 반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성 내지 사유는 객관적이고 공적(公的)이며 따라서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가 된다고 간주”해 왔다. (한자경, 『주희의 감정론』, 『철학논집』 39,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10쪽.)

와 재물에 마지못해 화를 푸는 것으로 마무리 될 뿐 그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물론 “아아의 기락굉걸흐시미 전후 다른 사람 꺾어져 프러지고 노흔흐 시를 보미 의식 창감흐며 심담이 붕넬흐여 각각 봉안의 물결이 요동흐고 미위 척연흐를 찍어시니”³⁸⁾와 같은 발화나 조노공이 본래부터 지혜는 부족하고 기력만 굳세었다는 언급들을 볼 때, 이 사건은 노년에 이른 부모가 기개를 잃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에 슬픔을 느끼며 부모가 무안하지 않게 사건을 매듭지으려는 조무, 조성의 효심을 드러내고, 이성적 사유나 본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면이 있다.³⁹⁾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 일화의 결론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한 집안을 바르게 이끌만한 능력을 지녔던 인물의 정신력도 노년이 되면 느슨해질 수 있고,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조씨삼대록>의 노년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 사건이기도 하다.⁴⁰⁾ 중심 가문의 어른

38) <조씨삼대록> 31권 110면.

39) 조노공이나 금선공주와 같이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인물들을 대하는 조씨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 그리고 작품의 서술 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철저히 이념화 된 ‘어른’이 갖는 이미지를 깨는 것이면서 동시에 규범으로도 온전히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한 이해를 보여”(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60쪽.)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노공 일화를 본성과 이념 간의 문제로 본다는 큰 틀에서는 본 연구와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노년’이라는 인생의 ‘시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노년’이라는 시기에 초점을 맞춰 이 일화를 보고자 했다. 선행연구의 초점은 <현몽쌍룡기> 연작 전후편이 선악이나 도덕에 관한 인식을 드러내는 태도의 차이를 살피는 데 있었다. 때문에 선악을 판별하는 인식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목하여 이념성에 대한 전후편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가운데 조노공, 금선공주, 조운현, 조아현 부부 등을 언급하였다.(허순우(2009), 앞의 논문, 151~165쪽 참조.)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격의 완성기일 것이라고 막연히 여겨지곤 하는 고전소설 속 ‘노년’의 모습을 실상에 가깝게 이해해보기 위한 예로 조씨 집안 노년 인물들의 몸(신체,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40)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물이 악인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인 조노공을 굳이 택하여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충실한 어린아이 같은 노년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⁴¹⁾ 이 일화는 임종에 이르는 순간까지 엄격하게 규범을 준수하고 매사에 검소하며 가내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소임을 다하는 인물들을 중심 가문의 어른으로 묘사하곤 하는 내용과 구별된다.

요약에 취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조노공이 나이 80세에 이성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80세의 조무가 아우 조성의 죽음에 직면하여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좋았던 때를 회상하며 슬픔의 감정을 토로하도록 그린 것.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조노공이나 조무가 여전히 가족들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것 역시 <조씨삼대록>이 노년을 청년과는 다른 이질적인 타자들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이미지 속에 그들을 가두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않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상황을 그럴 때 보통 아무리 사악한 꾀도 바른 것은 절대 범하지 못한다[邪不犯正]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조노공은 중심 가문의 존경받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사악함을 이기지 못했다. 소설은 노년의 조노공을 지혜로운 헤아림은 부족하고 기력만 굳세다고 말하기도 하고, 늙어서 정신이 흐려지고 풀어지며 총명함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 41) 조노공은 손자들 때문에 무릉선이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눈발에 앉아 용서를 비는 자손들을 방치하다가 마지못하여 용서한다. 그레놓고도 “분분히를 니기지 못하여 널오대 너의 두로 심방하여 무릉선을 츠즈내면 효손이 되리라.”(<조씨삼대록> 31권 108면.)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나 금세 “유현이 무릉선을 아니 잡고 노화 보내니 내 마음이 통한하여 죄를 다스리려 헛더니 금야의 화담미어와 가무희락이 죽히 노래즈의 칙의를 불위 아닐지라 내 마음이 통한하여 헛더니 다 프러져 무릉선을 다 잇느니 능휘 너의 밤마다 이리하여 나의 고격히를 위로하라.”(<조씨삼대록> 31권 109면.)라고 말하는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 이 장면에서는 화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손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이해심 있고 지혜로운 노년 조노공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분노하는 조노공을 자손들이 이해하고 위로하며 아이처럼 다독여주는 모습이 부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조노공이 가문의 2대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효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다. 노년 인물의 욕망과 감정에 주목한다고 하여 경험의 축적과 수양을 통해 정신적인 성숙을 이룬 노년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년을 몸은 쇠하고 정신적으로는 원숙한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후, 혈기가 미정한 젊은이들과 성숙한 노년을 구분하여 노년을 이상적인 타자로 묘사하고,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노년을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 하곤 하는 태도와는 구별되는 노년관을 노년의 몸에 관한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과 정신을 구분하여 정신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 것은 서구의 이성 중심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앞서도 언급했다. 오히려 동양의 경학에서는 몸은 늙어도 정신이 쇠하지 않는 상태는 성인이나 군주만이 가능한 것이고 보통 사람의 경우 몸의 노쇠와 정신의 쇠퇴는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한다.⁴²⁾ 유가나 장자철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노년⁴³⁾ 역시 마음과 몸이 함께 쇠하여 간다는 전제 하에, 노력을 통해, 학문 공구를 통해 정신의 쇠함을 막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노년에 이룰수록 정신이 성숙한다는 믿음은 젊은이를 노년에 비해 인격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보는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노인의 감정과 욕구를 외면하여 노년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⁴⁴⁾ 노년의 송시열은 이별과 죽음 앞에서 격해지는 감정에 대해 여러 차례 언

42) 장유승(2016), 앞의 논문, 175~183쪽.

43) 유가에서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하고 쉽게 의미를 두며 자신에게 주어 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노년을 인격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이승연(2010), 앞의 논문, 209~238쪽.) 또 장자철학에서는 심신수양을 통해 참된 자기를 회복하고 잡다한 외물에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를 달관하는 상태에 이룬 노년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유병래, 『장자철학에서의 노년의 삶』, 『시민인문학』 2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1~25쪽.)

44) 장유승(2016), 앞의 논문, 191쪽.

급했다고 한다.⁴⁵⁾ 노년의 정약용 역시 최종적으로는 내적 자유에 도달했는지 몰라도, 육체적 쇠락과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방대한 학문적 성과에 대해 깊은 회의 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⁴⁶⁾ 이상과 현실의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조씨삼대록>은 노년의 몸과 정신에 대한 이상적 기대와 달리 일상의 노년은 혈기가 미정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몸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따를 수도 있는 존재들임을 보여줌으로써, 노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드러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몸과 정신에 대한 <조씨삼대록>의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는 연작의 전편인 <현몽쌍룡기>와 달리 <조씨삼대록>이 인간의 본성과 욕망, 심리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던 특징이 있는 작품임⁴⁷⁾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도 의의가 있다.

5. 맺음말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너무나도 쉽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군자상을, 정신적으로 완성된 노년상을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것 같다. 현대의 노년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노년에 대한 인식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미디어가 생산해내는 노년 이미지를 꼽았는데,⁴⁸⁾ 조선후기에 이를 적용한다면 국문장편 고전소설이 일종의 미디어가 되어 노년

45) 장유승(2016), 앞의 논문, 189~199쪽.

46) 박혜숙, 「다산 정약용의 노년시(老年詩)」, 『민족문화사연구』 44,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10, 235쪽.

47) 허순우(2009), 앞의 논문, 128~165쪽 참조.

48) 정진웅(2014), 앞의 논문, 454~458쪽.

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독자들의 인식을 다소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 어갈 수도 있었겠다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조선시대 소설 가운데 국문장 편 고전소설만큼 노년 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작품도 드물기 때문이다.

몸의 문제에 주목하여 살펴본 <조씨삼대록>의 노년에 대한 작중 서술 은 전체 작품이 40권 40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분량이다. 그 령지만 몸을 통해 들여다 본 노년의 인물들이 조노공과 위부인, 조무와 조성 부부 등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중심 가문의 노년들이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 살펴본 <조씨삼대록>의 노년에 대한 인식은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가족관계 속에서의 노년의 모습을 정신적 측면 중심 으로 검토한 선행연구⁴⁹⁾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노 년인식을 이해해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첫 출발점이었다. 노년 문제는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이들의 것이기도 하므로 문학을 통해 추체험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⁵⁰⁾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장을 읽었는데, 추체험을 통해서도 노년은 죽음 못지않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생 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앞으로 고전소설에 담겨있는 노년에 대한 인 식이 더 많이 고찰되고 성과들이 축적되어 노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 면 하는 바람이다.

49) 정선희(2016), 앞의 논문, 179~207쪽.

50) 송혁기(2016), 앞의 논문, 139쪽.

참고문헌

- 김문희, 정선희 외 역,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 조혜란, 정선희 외 역,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 2010.
- 한길연, 김지영 외 역,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유씨삼대록』 1~4권, 소명출판, 2010.
- 고연희, 「흰머리와 잔주름의 붓끝에서 피어난 노년의 기상」,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111~155쪽.
- 김경미, 「우리름과 능멸의 삶, 늙음을 받아들이는 법」,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157~190쪽.
- 김미영, 「조선 노인들의 장수, 그 오래된 염원」,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11~62쪽.
- 김세서리아, 「양명학에서의 몸 담론과 그것의 현대적 의미」, 『양명학』 10, 한국양명학회, 2003, 9~40쪽.
- 노양진, 「몸의 철학적 담론」, 『철학연구』 27,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4, 31~58쪽.
- 마혜정, 「노년의 욕망: 발설과 은폐-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111~133쪽.
- 박노현, 「시적 노인, 번역된 노년과 낭만적 노화-tvN 미니시리즈 <디어 마이 프렌즈>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7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239~262쪽.
- 박은정,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의 ‘육취옥’ 연구」,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223~260쪽.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9쪽.
- 박혜숙, 「다산 정약용의 노년시(老年詩)」, 『민족문학사연구』 44,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235~263쪽.
- 송혁기, 「낙차: 쇠락하는 신체의 발견과 그 수용의 자세」, 『한문학논집』 44, 근역한문학회, 2016, 117~144쪽.
- 심귀연,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몸과 감정의 문제」, 『대동철학』 80, 대동철학회, 2017, 77~96쪽.
- 안세현, 「이옥의 <각로선생전>; 노쇠한 신체의 발견과 자기 서사」, 『한문학논집』

- 45, 근역한문학회, 2016, 253~276쪽.
- 안순태, 「윤기의 탄로시 연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221~247쪽.
- 유무상, 「공자에 있어서의 자유의 경지 -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1, 동양철학연구회, 1990, 27~44쪽.
- 유병래, 「장자철학에서의 노년의 삶」, 『시민인문학』 2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1~25쪽.
- 이선영, 박연숙, 「노인환자의 무력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공주 문화대학논문집』 26, 공주문화대학, 1999, 295~310쪽.
- 이수곤, 「조선 후기 시가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한구고전 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57~85쪽.
- 이숙인, 「노년의 거장들, 어떻게 달랐나」, 『노년의 풍경』, 글항아리, 2015, 64~110쪽.
- 이승연, 「유가에 있어서 ‘노인’-늙음에 대한 인식과 대처」, 『유교사상연구』 24, 한국유교학회, 2010, 209~238쪽.
- 이지영, 「노년담론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자아상과 노인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한국노년학회, 2009, 1001~1024쪽.
-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37~269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353쪽.
- 정선희, 「고전서사문학에서의 노년상과 현대적 의의」,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79~207쪽.
- 정유승, 「노인의 심리 변화에 대한 조선 문인의 인식」, 『한문학논집』 44, 근역한문학회, 2016, 173~194쪽.
- 정인숙,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 -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23~158쪽.
- 정인숙, 「회혼가류 가사를 통해 본 노년의 행복과 가문의식 그리고 내면의 갈등」,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13~141쪽.
- 정진웅,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보건사회연구』 3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452~476쪽.
- 조남욱, 「세종시대 노인공경의 실제와 의의」, 『윤리교육연구』 34,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245~274쪽.

- 조용호, 「조씨삼대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146쪽.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73~107쪽.
-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8, 217~264쪽.
-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 : <유씨삼대록〉의 순 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483~518쪽.
- 한자경, 「주희의 감정론」, 『철학논집』 39,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9~35쪽.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00쪽.

ABSTRACT

Image of Old Age And the Implication from

<*Chossisamdaerok*(曹氏三代錄)>, a Korean Classical long Novel

- Mainly on the descriptions focusing on the 'body' and 'emotion' of elderly people

Hur, Soon-woo

This study about Korean Classical long Novel <*Chossisamdaerok*> examines on its portrait of elderly people, especially focusing on the description on their bodies and emotions, thus investigates an aspect of the cognizance of the aged the novel carries. In oriental way of thinking, the meaning of aging tends to be sought from our minds first. But body and emotion can't be overlooked to fully understand the aged. Korean Classical long Novel ls have been commonly understood to support an ideal and normative image of the aged that is mentally mature, while an examination on the description of <*Chossisamdaerok*> on them confirms that its view on the aged is not entirely normative.

To understand its cognizance of the aged, this study concentrated upon its mentions of bodies of the aged which are described more healthy and vigorous than those of the young, and upon the frank description of the uncontrollable emotions of the aged. As the result, it can be said that in physical aspect, the novel sees the aged as vigorous — instead of impuissant —, and realistic beings who can preferentially follow bodily desires, and are as mentally immature as red-blooded youth. It can be also confirmed that it doesn't entirely devalue the experience and age of the aged just because they are unfinished beings who can't meet the ideal expectation. Image of the aged in <*Chossisamdaerok*> as seen in physical aspect represents much as a vigilance against the understanding that fixates an ideal image of the aged and use it as a measure to evaluate and alienate them. It also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 proof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 of <*Chossisamdaerok*> as a novel that is

concerned about human nature and matters of individuals.

Key Words the aged, body, spirit, emotion, unfinished beings

| | |
|-------|--------------|
| 논문투고일 | : 2018.01.18 |
| 심사완료일 | : 2018.02.08 |
| 게재확정일 | : 2018.02.18 |